



전동킥보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할까?

-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 전동킥보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할까?

▣ 전동킥보드 관련 규제

안전기준

통행방법

사고책임
보험

자전거와
유사하게 규제

규제
논의중

■ 전동킥보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할까?

▣ 전동킥보드 보험가입 의무화 동향

특별법
도입

보험가입
의무화



특별법
도입 X

합리적
규제방안 모색

▣ 독일의 전동킥보드 규제

전동킥보드에 관한 특별법
‘소형전기차의 도로교통 참여에 관한 규정’



보험
스티커



운전가능연령
14세



최고속도



자전거도로
운행



운전면허
불필요



헬멧 의무 X
헬멧 권장 O

| 소형전기차의 도로교통 참여에 관한 규정 |

(2019년 6월 제정)

운행방법

자전거와 유사

안전기준 및 사고책임

자동차와 유사

통행방법

운전면허 의무 없음

만 14세 이상 운전 가능

자전거 도로 주행 가능

| 소형전기차의 도로교통 참여에 관한 규정 |

(2019년 6월 제정)

특별법에 별도규정이 없는 한
자동차에 대한 규제를 전동 킥보드에 동일 적용

자동차에 준하는
안전기준

자동차 보험
의무적 가입

자동차 보험스티커
부착 필수

▣ 프랑스의 전동킥보드 규제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규정

주의

→ 개인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해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 인도 주차 가능

- 헤드폰 및 이어폰 착용 금지
- 휴대전화 사용 금지

- 2020년 7월 1일까지 장치 부착
- 전조등 및 후미등
 - 후면 및 측면 역반사 장치(반사기)
 - 경고음 장치
 - 제동 장치(브레이크)



안전 수칙 시행

시행일 : 2019.10.25

12세 미만 운행 금지

동승자 탑승 금지
→ 1인 사용만 허용

도심 지역, 보행자 전용 도로,
산책로 또는 자전거 전용 도로 주행 시
헬멧 착용 적극 권장

가시성이 낮거나 도심 지역의 경우
역반사 의류 또는 장비 착용

공공도로 운행 시
시속 25km/h 유지*

* 공공도로 이용 시 개인형 이동장치의 속도는 시속 25km/h로 유지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운전자가 25km/h로 속도를 유지하여 운행하여야 하며, 위반 시 운전자는 판매자 및 제조업체와 함께 연대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

도로에서의 주의사항

- 인도에서 주행 금지, 손으로 끌기
- 도심지역에서는 가능한 한 자전거 전용 도로 및 차선을 이용하여, 그렇지 않은 경우 속도가 50km/h로 제한된 도로에서만 주행 가능
- 시외 지역의 경우 산책로 및 자전거 전용 도로로 주행하여야 하며, 향후 경찰 당국이 특정 도로를 지정하여 허가할 가능성이 있음

위반 시 제재

- 교통 규칙을 위반하거나 동승자가 탑승한 경우 : 벌금€35 (2등급)
- 인도 무단 운행 또는 무허가 주차 : 벌금€135 (4등급)
- 최대 속도 25km/h 초과 주행 시 : 벌금€1,500 (5등급)

통행방법

- 운전면허 의무 없음
- 만 12세 이상 운전 가능
- 자전거 도로 운행 가능

[자료] Ministère de la Transition écologique(2020.9.2), Trottinettes électriques et EDPM: la réglementation en vigueu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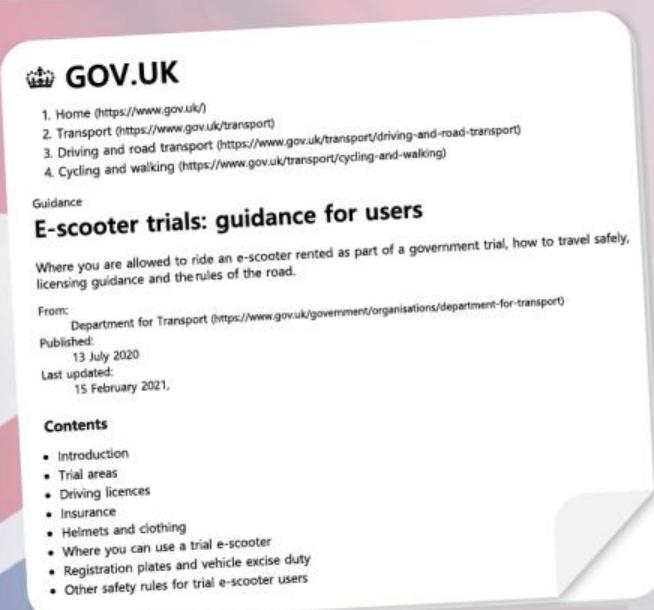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규정 (2019년 10월 제정)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대상

자동차
(véhicule)

전동
킥보드

▣ 영국의 전동킥보드 규제



전동킥보드는
자동차에 해당

전동킥보드 운행시
자동차 관련 규제 준수가 원칙

전동킥보드 시험운행 가이드라인

(2020년 6월 제정)

시험운행 요건 갖춘

공유 전동킥보드 운행 허용

시험운행 공유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
운행 가능

자동차 사고
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 일본의 전동킥보드 규제

전동킥보드는 **자동차**에 해당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필요

차도 운행

자동차보험 의무 가입

신사업특례제도에 따른 전동킥보드 공도시험운행계획



**mobby
ride**

L U U P

일부 공유 킥보드 업체
시험운행 실시

본격적인
제도 정비 예정

미국의 전동킥보드 규제



각 주 및 도시별
별도 규제 적용

보험가입 의무화
논의 적음

▣ 국가별 전동킥보드 규제

독일

- 소형전기차에 관한 특별규정(eKfV) 도입
- [장치] 속도(6~20km/h), 무게(55kg), 크기(70cm, 140cm), 연속정격출력(500와트), 안전장치(감속/조명/경음기 등)
- [운행] 면허 불필요, 14세 이상 운전 가능, 자전거도로 운행
- [보험] 보험가입 의무 명시, 보험스티커 부착시 운행 가능

프랑스

-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규정' 도입: 도로법에 편입
- [장치] 속도(6~25km/h), 크기(90cm, 135cm), 안전장치(제동/조명/경음기)
- [운행] 면허 불필요, 만12세 이상운전 가능, 자전거도로 운행
- [보험] 보험가입 의무(별도 규정 無, 보험법상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

영국,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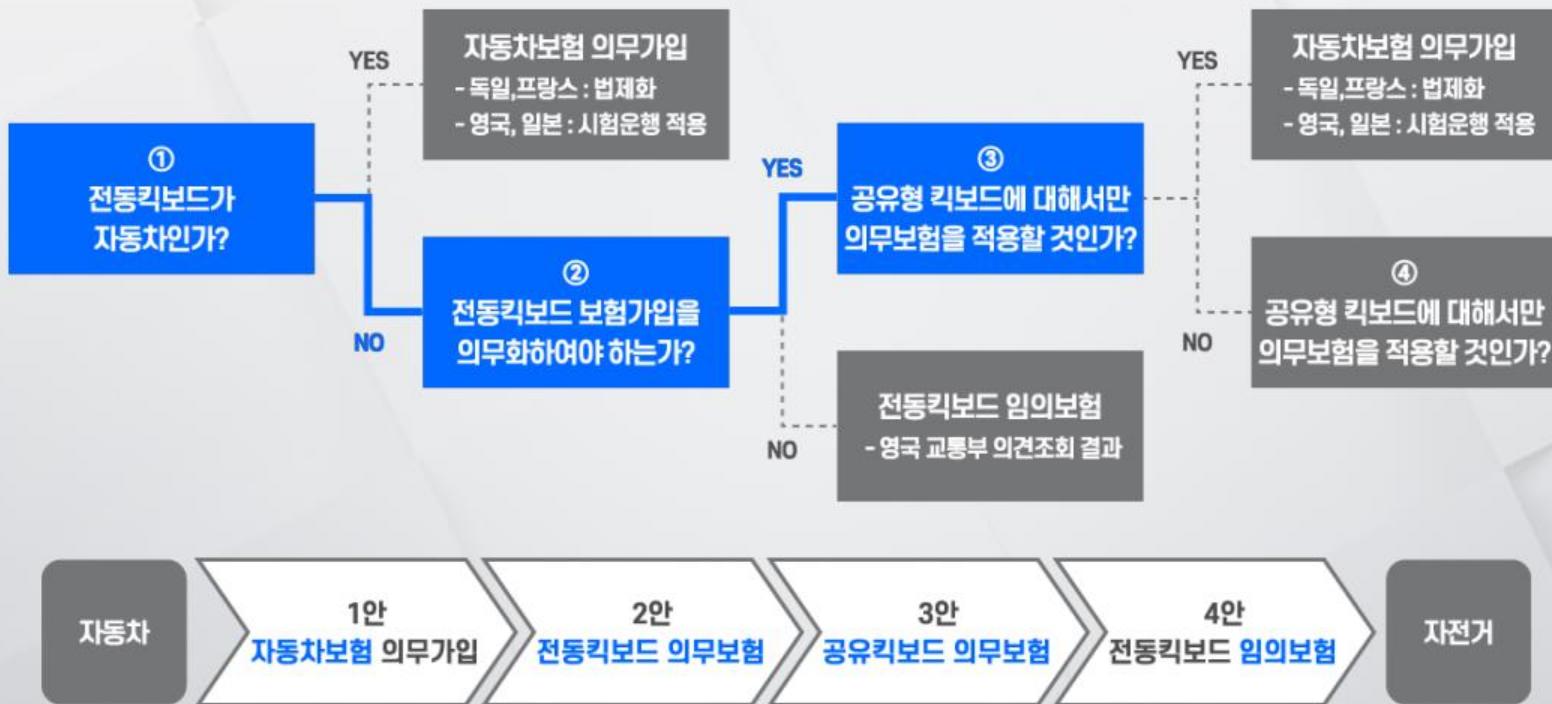
- 자동차 관련 규제 전면 적용 : 원칙적 운행 금지
- 공유 전동킥보드 관련 시험운행 실시
(영: DfT, 일: 신산업특례제도)
- 전동킥보드 규제방안 관련 논의 진행
(영: DfT 보고서, EAPC v Moped)
- 시험운행 및 논의결과 반영하여 규제 정비 예정

미국

- 주별로 규제 상이
- 일반적인 자동차보험 및 이륜차보험 가입 대상은 아니라고 봄
- 전동킥보드 관련 전용보험은 아직 도입되지 않음
- 보험가입 의무 논의는 매우 드물

■ 전동킥보드 보험제도 관련 고려사항

▣ 전동킥보드 보험제도 설계 시 고려사항



▣ 전동킥보드, 보험가입 의무인가?

자동차
맞다!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화

자동차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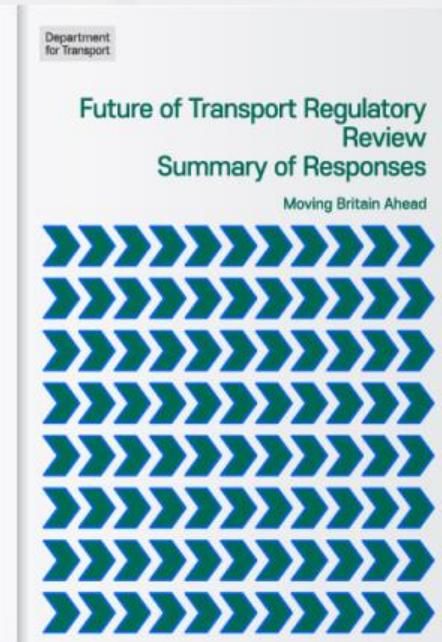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 없음

전동킥보드 사업자에게
보험가입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

■ 전동킥보드 보험제도 관련 고려사항

▣ 전동킥보드 보험가입 의무화 필요한가?



영국 교통부 의견 조회

보험가입을
의무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전동킥보드
활성화에
장애

불법적 이용
양산

과중한
비용 부과는
부당

■ 전동킥보드 자체의 성능 및 사고 위험

▣ 전동킥보드 충돌사고 리스크

전동킥보드의 주행성능과 충돌 리스크는
자전거와 비슷한 수준



■ 전동킥보드 자체의 성능 및 사고 위험

▣ 국제교통포럼 발간 보고서

OECD International Transport Forum(2020), “Safe Mobility”

사망사고 유발 가능성

자전거와
유사

자동차,
오토바이보다
낮음

전동킥보드 등급 구분

경량
차체 중량
35kg 이하

저속
최고속도
25km/h 이하

자전거와 유사하게 규율

전동킥보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할까?

전동킥보드의 확대와 과제

- 전동킥보드의 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 지속적 확대
- 향후 개인현 이동장치를 위한 도로환경 구축 후 전동킥보드 활용 증대 예상
- 사고 시의 보상방안 및 보험제도 정비는 전동킥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한 필수적 선결 과제
- 전동킥보드 보험제도 도입에 대비한 전용 상품 마련 준비 필요

본 저작물은 보험연구원 발간자료를 바탕으로
보험연수원과 보험연구원이 공동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